

[경제]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10대 성장동력 기술격차 단축기간

디지털TV 방송	1.5년~0.7년
차세대 반도체	4년~1.6년
지능형 로봇	3년~2.2년
차세대 이동통신	2년~0.9년
디스플레이	1.5년~1.1년
지능형 홈네트워크	2년~1년
콘텐츠·SW솔루션	4년~2.2년
차세대 전자	6년~3년
바이오 신약 장기	5년~4년
미래형 자동차	5년~4년

2003년 11.5% → 2006년 15.2%으로 성장
고용인력 90만명·총생산액 244조원 급증세

정부가 5~10년 후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집중 육성해온 반도체, 지능형 로봇산업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3년 11.5%에서 2006년 15.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3회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

별위원회를 열어 그 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 보고된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수준은 디지털TV·방송의 경우 세계 최고기술에 비해 2003년 1.5년의 기술격차를 보였으

나 2006년에는 0.7년으로 좁혀졌다. 또 차세대 이동통신은 2년에서 0.9년으로, 디스플레이와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각각 1.5년, 2년에서 1년,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솔루션과 지능형 로봇 산업은 각각 4년, 3년에서 2.2년으로 기술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차세대 전지는 6년에서 3년, 바이오신약·장기는 5년에서 4년, 차세대 반도체는 4년에서 1.6년, 미래형 자동차는 5년에서 4년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산업의 고용인력은 2003년 52만 3천명에서 2006년 90만4천명으로 48만1천명이 늘었고 총 생산액은 2003년 156

조5천억원에서 2006년 244조4천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부가가치역도 2003년 73조2천800억원에서 113조9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0대 산업 중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품 출시 등 가지적 성과를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시제품에 대한 시범생산 등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차세대성장동력 사업 수행에 적합한 핵심 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후속모델도 적극 발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연말특보팀 tuim@kwangju.co.kr

중진출기업 26% '적자'

고용환경 변화·세금우대 축소 어려움 겪어

무역협, 180개사 조사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중국 진출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8일 발표한 '중국진출 우리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6.4%의 기업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으며, 33.6%의 기업이 최근 중국의 경영환경이 1~2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응답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 위험 요인으로 정부의 긴축조치, 고용환경의 변화, 세금우대 축소와 세무조사 강화, 위안화 평가절상, 환경규제의 강화, 가공무역제도 정책의 변화,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R&D) 투자요구 강화, 중국과 선진국의 통상마찰 등을 꼽았다. 특히 고용환경의 변화를 위험 요인으로 지적한 기업이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이는 노동조합 권한 확대, 퇴직금 지급 및 사회보장비용 징수 관리 강화 등으로 실질 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노동집약 산업 위주로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78.8%가 사업을 확대하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해 아직까지 중국은 한국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1차 5개년 계획'에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수 진작 정책에 따라 소비시장의 성장이 예상됨과 동시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간분양 택지비 감정이 기준 적용

당정, 잠정 결론 내년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택지비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분양가 인하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택지비 산정 기준을 일단 감정으로 하되 조성 비용이 감정이 이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결론이 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1월 고위 당정협의회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적용돼 온 제도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 분양가를 결정했으며 민간택지에서 이 틀을 벗어날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7개항목중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은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産銀 등 공기업 31% 평균보수 5,000만원

産銀 8,500만원
KBS 6,700만원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31%의 직원 평균보수가 5천만원(2005년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획예산처는 29일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개선한 '공공기관 알리오(ALLIO)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개통을 위해 295개 공공기관들로부터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보수를 파악한 결과 ▲5천만원 이상 31%, 90개 기관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 106개 기관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24%, 72개 기관 ▲3천만원 미만 9%, 27개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은행의 1인당 평균보수가 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산하·출연기관 직원 평균보수액 상위 20개사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주무기관	평균 보수액	상시 종업원
한국산업은행	재경부	85	2,075
한국수출입은행	-	72	615
한국기계연구원	과기부	70	444
한국전기연구원	-	70	307
한국화학연구원	-	68	30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68	36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67	304
한국방송광고공사	문화부	67	35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기부	65	333
한국원자력연구소	-	65	1,067
신용카드결제(주)	재경부	65	162
중소기업은행	-	64	6,327
한국과학기술원	과기부	63	709
한국토지신탁	건교부	63	163
기원SG자산금융	재경부	63	30
기보캐피탈	-	63	22
산업기술시험원	신자부	61	251
예금보험공사	재경부	61	66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61	6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60	115

한국수출입은행 7천200만원, 한국기계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각 7천만원, 한국화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각 6천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투자기관중에서는 KOTRA가 5천800

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 각 5천700만원, 대한주택공사 5천300만원, 한국조폐공사 5천200만원 등이었다.

KOTRA의 경우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획처는 분석했다. 정부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6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천500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천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작년 12월부터 운영해 오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이번에 공공기관 '알리오(ALLIO, http://www.alio.go.kr)'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새 시스템에는 공공기관들의 평균 보수액, 기관장 업무추진비,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출자현황, 출연·증여, 경영부담요소 비용추계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은 전체대상 313개 기관 가운데 295개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상업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큰폭 하락

국세청 고시... 5대 광역시중 유일 광주지역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이 '2007년 1월1일 시행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 시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 가운데 광주지역의 상업용 건물의 평균상승률은 지난해 동기대비 -7.8%, 오피스텔은 -2.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상가 7.3%, 오피스텔 6.5%였다. 서울 각각 10.0%·7.

만6천941호로 전체의 84.4%에 달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중 부산 810동·5만347호, 대전 210동·2만758호, 대구 158동·1만3천810호, 광주 125동·9천773호, 울산 94동·4천315호 순이었다.

광주지역에서 동(棟)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상업용 건물은 서구 양동의 양동상가 나동으로 209만3천원/㎡를 기록했다. 또 최고가 오피스텔은 서구 치평동 세브나오피스텔로 68만원/㎡이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자에 대해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2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고, 재산상징 신청관련 문의는 1577-2947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일우건설(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남자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2-547-3002
(주)부림	주간업무 A/S물품정리 포장업무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30	062-953-6462
신성하이텍(주)	생산/품질/영업관리/생산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31	062-952-1441
정일교육문화(주)	친절한 정일선생님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31	062-514-7900
(주)인터네셔널	푸드존 관리직원 모집	초대졸/경력3년	1800~2000	01/05	062-611-8014
신기술*	패키지 디자이너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06	042-253-3105
서림기계공업(주)	정규직 사무관리 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600~2800	01/06	062-514-0081
재능교육(상무지역)	재능선생님 모집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07	062-374-1132
(주)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09	062-601-7203
(주)서광	회계/경리직 및 품질관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10	061-394-6458
동일건설(주)	공무/건설품질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0	061-751-5668
삼성키메리타동부총판(주)	광주 상무팀미트 삼성키메리타 파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0	02-469-9832
정광금속(주)	지재 및 영업관리 대리를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0	062-955-6081
남해철강(주)	설계 및 건설 품질/제작/공정 관리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1/10	062-943-867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중부세, 목적세 전환 안돼”

재경부 세제실장 “양도세 등 현행 틀 유지”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정기국회에서 중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큰 이점은 없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중부 부동산 세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어 “2010년까지 세율인상·세목신설보다는 숨어있는 세원, 피해다니는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 정부 재정 수입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중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의 수정 가능성 및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허 실장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인내 현재 총 양도차익의 5~6%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세의 목적세 전환과 관련해 허 실장은 “중부세는 지방세이면서 재산세 차원에서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면서 “지자체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예초 출연, 중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의 수정 가능성 및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

엠코코리아, 전무이사 등 정기인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엠코코리아)는 28일 객체성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송경석 이사 등 4명을 상무이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내년 1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선두기업인 엠코코리아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가치경쟁에 힘입어 올해 창업 이래 최대 물량수주 기록과 매출기록을 갱신하며 제 2의 도약을 맞았으며, 내년에는 '엠코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부영, 고객만족센터 '사랑으로' 운영

주택건설업체 (주)부영은 다음달 2일부터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사랑으로'의 고객만족센터(1577-5533)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객만족센터'에서는 45명의 상담원이 고객 불만사항이나 하자 수리요청 등을 접수·처리하며, 분양·계약·입주안내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윈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e-메일과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CRM(고객관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함으로써 개별 고객들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